

가정의 달 가족·지인간 n차 감염 확산 '비상'

광주·전남 확진자 증가세 속 어린이날·어버이날 대규모 감염 우려 학교·학원 등서도 확진 잇따라...방역당국 긴급 방역 대책 마련 고심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감염 패턴이 가족과 지인 중심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가족간 밀접접촉이 예상되는 5월 5일 어린이날과 5월 8일을 기점으로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긴급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1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으며, 총 누적 확진자는 2399명으로 늘었다.

14명 중 8명은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됐거나 해외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감염 경로는 다양지

인 모임 관련 5명, 북구 호프집 관련 1명, 광주 2335번 관련 1명, 광주 2380번 관련 1명, 광주 2350번 관련 1명, 해외 유입 1명 등이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4명이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유증상자 검사에서 27일 3명, 28일 1명 등 코로나19 감염자를 확인해 동선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당국으로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지인간 전파 사례가 증가한 점도 부담이다. 4월 들어 광주에서만 음식점과 주점 등을 매개로 62명이 감염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감염된 가족·지인에 의해 n차 감염된 사례라

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박항 광주시 북부건강국장은 "최근들어 대규모 집단 감염보다는 가족간 지인간 감염이 확산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족간 모임이 잦을 수밖에 없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개인별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지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목포와 무안 등 서부권의 학교, 학원, 과외 장소에서 잇따라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전남에서 나온 신규 확진자 5명 중 4명은 학교·과외 관련 확진자다.

전남 1042번은 60대 여성으로 앞서 지난 24일 확진된 목포 영흥중 교사(1032번)의 가족이다. 같은 날 확진된 남양초 학생 2명의 경우 과외 교사(전남 1035번)에게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1044번 확진자 역시 무안 남악의 학원 강사로 나타났다. 전남 서부권 학교와 학원, 과외 장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자 전남도는 전남도 교육청과 방역 협의를 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전남지역 보습학원 강사 60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학교 교사의 경우, 중세 발현 시 코로나 진단검사를 즉시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신규 확진자는 한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오후 5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사례 1명으로 전남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1047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부동산 투기 의혹 기영옥씨 경찰 출석 조사 돌연 연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프로축구 FC서울 기영옥의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4월 22일 광주일보 7면)이 28일 잡혀있던 경찰조사를 돌연 연기했다.

28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개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기 전 단장 요청을 받아들여 추후 소환 일정을 잡기로 했다.

경찰은 애초 이날 기 전 단장을 상대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기 전 단장과 다시 조율해 향후 소환 일정을 잡을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미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에 들여 매입한 것과 관련, 기씨 부자를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마륵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됐거나 인접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기 의혹을 받았다.

기 선수와 기 전 단장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축구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방역수칙 어긴 무안군 면장 면사무소 직원·이장 등 7명과 저녁 식사·술자리 물의

무안군 A면장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마을 이장 등과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A면장은 지난 9일 오후 7시부터 봉만면 한 식당에서 같은 면사무소 직원 2명과 마을 이장 등 모두 7명과 함께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는 방역수칙이 발효 중이었으며 면장 등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됐던 시기이다.

특히 A면장과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교육공무원 2명이 술자리 문제로 다툼이 일면서 이와 관련해 경찰에 진정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A면장은 "4명 이하만 자리를 함께 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테이블을 따로 했다"며 "당시 다툼 과정에서 욕설은 했지만, 막상 잡이 같은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분주 28일 오전 광주 북구중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어디서나 사랑의 밥차' 반찬나눔 행사에서 북구청 주민자치과 직원들과 센터 봉사자들이 돌봄이웃 300세대에 보낼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위안부 피해자 손해소송 각하는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 40개 시민사회단체 비판

'일본 정부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취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시민사회단체가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투쟁은 판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기자회견엔 총 40개 단체가 연명했다.

위안부 '2차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김예지 변호사는 "이 사건 소는 피해자들이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더이상 외교적 해결 방법은 없었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마지막 구제를 구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는 소송의 의미를 완전히 간과한 채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일본이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국가면제(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으로,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5월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안보문제, 백신문제 등을 구실로 미국 압력에서 선불리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전남 해안쓰레기 가장 많은 곳은 신안 고이도

완도 신지·해남 송평·신안 임자 순 해양환경공단 3년간 수거현황 분석

신안 압해읍 고이도내 고장마을이 최근 3년간 해양환경공단의 전남지역 12개 바다 모니터링 지점 중 가장 많은 해안 쓰레기 <광주일보 4월 26일 6면> 가 밀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모니터링하는 전남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안쓰레기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안쓰레기가 가장 많이 밀려온 지역은 신안 고장(434.9kg)인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 고장에 이어 완도 신지(397.9kg), 해남 송평(356.5kg), 신안 임자(297.9kg) 등 순으로 밀려온 해안 쓰레기가 많았다.

공단은 영광(백바위)·신안(임자도·고장)·해남(예락·송평·목동)·진도(하조도)·완도(신지)·고흥(염포·신흥)·순천(반월)·여수(백야도) 등 8개 시·군 12개 지점을 대상으로 매년 6차례에 걸쳐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 최근 3년간 수거한 해안쓰레기는 2656.7kg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플라스틱(1667.1kg)이 전체(2656.7kg)의 62.7%에 달했다. 목재(668.1kg), 고무(115kg), 금속(77.4kg), 혼합재질(64.3kg), 유리(32kg), 천연섬유(25.7kg) 순이었다.

개수로 나누면 플라스틱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늘어났다. 3년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1만 4624개) 중 86.4%(1만 12647개)를 차지했다.

플라스틱 다음으로는 목재(580개), 금속(508개) 등 순으로 많았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 폐기물로 인한 해양 오염 수준, 발생 원인을 밝혀내는 한편, 인접 국가간 폐기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